



한국축구의 '일그러진 영웅'

홍명보 '쇼크'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나는 실패한 감독” 공식 사퇴

허정무 축구협 부회장도 물러나

홍명보(45) 축구 대표팀 감독이 결국 2014 브라질 월드컵 성적부진의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월드컵 대표팀 단장을 맡았던 허정무(59)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동반 사퇴했다.

홍명보 감독은 10일 서울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책임 지고 대표팀 감독자리를 떠나겠다. 앞으로 도 좀 더 발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령탑을 맡은 1년여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나 때문에 많은 오해도 생겼다”며 “모든 게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것은 결과가 이야기한다. 알지 못한 패배 때부터 사퇴를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온 만큼 나는 실패한 감독이다. 월드컵 이후 잘못된 점을 반성해서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사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월드컵 최종명단을 확정하면서 불거진 ‘의리 논란’에 대해선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독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절대 아니다”며 “한국 축구 사령탑은 ‘독이든 성배’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시작했다. 팬들도 후임 사령탑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24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은 382일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고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지난해 7월 동아시아컵을 통해 공식적으로 감독직을 시작한 이후 이번 월드컵까지 5승4무10패의 성적표를 남겼다.

홍명보 감독에 무슨 일이 ...

브라질월드컵 개막 앞두고 ‘토지 구매’ 구설수
박주영 ‘의리 기용’ 해외 언론에서까지 ‘못매’
조별리그 1무2패 황당한 성적으로 16강 탈락
벨기에전 뒤 현지여와 ‘음주가무’ 폭탄주 회식
미국 전훈 중 황열병 주사...훈련 소화 못하기도

홍 감독은 애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축구협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2일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4시간에 걸친 면담 끝에 남은 계약기간까지 감독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월드컵 성적 부진을 놓고 축구협회 내부에서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서 여론의 반응은 냉담해졌고, 이런 비난은 모두 홍 감독에게 쏟아졌다.

이런 와중에 홍 감독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토지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개인적인 명예까지 실추됐다. 설상가상으로 대표팀이 월드컵을 마치고 브라질 이구아수 캠프를 떠나기 전 현지 여성과 즐겁게 웃는 표정으로 회식하는 동영상까지 유출되면서 홍 감독은 끝내 유임을 반복하고 사퇴를 결심했다.

그는 “땅 부분은 자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내 삶이 그렇게 비겁하지 않았다. 훈련 시간에 나와서 토지 매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회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퇴를 결심한 상황에서 월드컵에서 부진한 선수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다”며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허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월드컵 대표팀 단장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홍 감독과 동반 사퇴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책임을 축구협회가 떠안겠다”고 발표했다.

허 부회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 당시 “꼭 누가 책임진다는 것보다는 아직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았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최선의 방법을 따지는 게 최선”이라고 말해 “축구협회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팬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홍명보 감독 유임 결정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협회 회장단과 함께 머리를 숙이며 월드컵에서의 부진을 공식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허정무 “물러갑니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후임 사령탑 선정 ‘첩첩산중’

■ 고민 커진 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제역할 못하고
월드컵 부진 분석도 안 돼
2018 러시아월드컵 대비
국내파나 외국인이나
의견조정부터 쉽지 않을 듯

2014 브라질 월드컵 부진에도 유임된 홍명보(45) 축구 대표팀 감독이 결국 사퇴하면서 후임 사령탑 선정을 놓고 대한축구협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10일 “홍 감독이 전날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축구협회도 후속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축구협회도 사령탑 ‘후보군 풀(pool)’을 가지고 있는 만큼 후임 감독 선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새 감독을 뽑으려면 기술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월드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기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사령탑 선정 작업을 시작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1무2패의 저조한 성적으로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홍 감독은 먼저 축구협회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홍 감독을 직접 만나 내년 1월 아시아컵까지 지휘봉을 잡도록 설득하며 유임을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 월드컵 준비 기간에 이뤄진 홍 감독의 토지 매입 사실이 불거지고, 조

별리그 탈락 뒤 이뤄진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 등이 잇달아 구설에 오르면서 결국 홍 감독은 자진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

유임 결정이 나온 지 1주일 만에 전격 사퇴로 이어진 과정에서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월드컵 부진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후보군 기술위원장도 이미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구협회로서는 사령탑 선정에 앞서 차기 기술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게 ‘발등의 불’이 된 형국이다.

차기 사령탑 후보 선정 작업도 만만치 않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허정무 전 감독이 한국 축구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업적을 세우면서 국내 지도자의 역량도 높아졌음을 증명했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국내 지도자로는 세계 축구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홍 감독 역시 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여러 차례 고사하다가 축구협회의 설득에 지휘봉을 잡았지만 월드컵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차기 사령탑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대비하는 장기 포석에서 역량이 검증된 외국인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지도자도 축구협회의 충분한 지원과 시간이 보장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아시아컵이 예정된 상황에서 신임 사령탑 역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터라 축구협회로서도 책임자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특허특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트라이슈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데!!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